



삼성

■ 세계4위 휴대폰 업체로 상승세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3/4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5%를 점유, 세계 4위의 휴대폰 업체로 올라서며 M/S면에서 대폭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 케스트(DQ)가 발표한 올해 3/4분기 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 전자는 총 7,108천대를 판매, 시장 점유율 7.5%로 지난해 동기 세계 휴대폰 시장 7위에서 세단계 올라섰으며, M/S는 지난해 동기대비 3.5%성장하는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대폰 시장 순위 1위~5위까지 노키아, 모토롤라, 에릭슨, 삼성전자, 지멘스 순으로,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서 지멘스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함에 따라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소위 빅3 체계인 노키아, 모토롤라, 에릭슨 체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호주 등의 CDMA 휴대폰 시장 확대와 98년부터 본격 수출을 시작한 삼성 GSM 휴대폰의 유럽 시장 공략의 성공으로 분석되며, 삼성전자는 저가, 중가, 고가로 확연히 구분된 휴대폰 시장에서 중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이 점차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시장의 CDMA2000 1X 제품 및 유럽의 GPRS 시장 등의 차세대 제품의 마케팅 활동과 병행하여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2,8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할 계획으로 2,200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 DDR 전품목, Intel사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CPU 및 메모리 칩셋업체인 인텔사로부터 DDR D램 전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제품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Intel사의 이번 인증은 현재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DDR 전제품에 대한 것으로, 256Mb 128Mb 등 단품과 512MB 256MB 128MB 등 모듈이 이에 해당된다.

DDR D램은 PC 그래픽카드 게임기 서버 등이 주요 수요처이며, Dataquest에 따르면 '02년 전체 D램 시장 중 29.2%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급성장 품목이다.

특히 펜티엄4 PC용 DDR 칩셋인 Intel "i845-D (일명 브룩데일 플러스)"가 내년초 출시 예정이어서, 삼성전자는 DDR266과 DDR200 등 고부가 DDR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99년 세계 최초로 1Gb DDR D램 상용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01년 10월부터 노트북용 512MB DDR 모듈을 본격 양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세계 DDR D램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업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128Mb 기준으로 월 1,500만개로 제품 생산량을 늘려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데이터

■ 국내 최초 CMM 3 Level 획득

포스데이터(대표 김광호)는 최근 국내 기업중 최초로 미국의 S/W 프로세스 평가모델인 CMM의 3 Level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데이터의 Level 3 획득은 S/W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품질활동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M이란 S/W 개발에 있어 프로세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로 1991년 미국 정부가 요청하여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가 개발한 S/W 개발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

포스데이터는 지난 99년 10월 CMM 2 Level을 획득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이번에 3 Level 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심사는 SEI의 공인 심사관으로부터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CMM 3 Level 은 미국 정부기관이 발주한 S/W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수준으로, 포스데이터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납기단축, S/W제품의 결함 감소 등의 효과로 대외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체 개발 패키지 및 제품의 해외수출이 가속화됨은 물론 해외 SI시장 진출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동사는 내년까지 표준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하여 CMM 4 Level 기반의 PMS(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CMM 최고수준인 Level 5를 획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계기판과 같이 품질경영 상태를 한 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품질지표 메트릭스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포스데이터 김광호 사장은 “국내 기업들의 S/W 수출이 생산량에 비해 극히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적인 품질인증면에서 경쟁국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CMM 레벨 2를 획득한 기업이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5등급 기

업이 36개, 4등급 기업이 26개인 인도와 5등급이 2개인 중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포스데이터의 3 Level 획득이 국내 기업들의 품질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됨으로써 국내 S/W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CMM 등을 토대로 한 국내 S/W 및 SI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업체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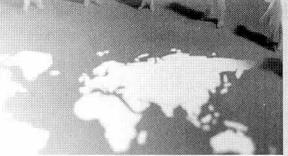
■ 포스코 계열사 CEO/CIO 대상 IT세미나 개최

포스데이터는 11월 1일 삼성동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계열사 CEO 및 CIO, 정보담당 부서장을 초청, IT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그룹의 IT전문기업으로서 계열사 CEO 및 CIO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경영 체제 조기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포스코개발, 포스틸, 포항강판 등 13개 계열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김광호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대 곽수일 교수의 ‘정보사회의 기업 경영전략과 리더쉽’의 강연이 있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지난 7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포스코 PI(Process Innovation) 구축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열사 ERP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포스데이터 관계자는 “포스코 계열사 CEO들이 자사의 정보화 비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평가가 좋다”며, “앞으로도 각 기업의 정보화 추진 방



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 그룹의 IT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텔

■ 우편 주소변경서비스 추진

한국통신하이텔(주)(대표 최문기)는 (주)짚코드와 공동으로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란 이사 또는 직장을 옮길 경우 중요한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일일이 본인의 거래회사에 연락해 바꿔야 했던 불편함을 인터넷으로 변경된 주소를 한 번만 등록하면 본인이 선택한 거래회사의 우편물 발송 주소가 한번에 변경되는 편리한 서비스다.

물론 주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사, 증권사, 항공사, 백화점 등의 회사 뿐만 아니라 친구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화번호 또는 e-mail주소변경시 one-stop e-mail로 편리하게 변경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한국통신하이텔과 짚코드는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통신과 연계하여 전화를 통해 고객의 여러회사들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짚코드의 이수원 사장은 "장기간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 서류의 경우 이사를 하고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소지 변경등록을 잊는 경우가 많아 연말이 되어서야 재발송 신고를 하는 사람이 최고 15%에 달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수취인의 주소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되는 우편물의 재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KTF

■ 세계 최초 1X EV-DO상용시스템 시험평가 실시

KTF(대표 이용경)는 지난 7일부터 경기도 일산소재 자사 시험센터 및 인근 8개 상용 기지국사에서 최고속도 2.4Mbps급 초고속 무선데이터 전송기술인 "1x EV-DO" 상용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벤치마킹 테스트)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1x EV-DO는 고속 무선데이터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 전용 통신망으로서, cdma2000-1x 서비스와 더불어 고품질, 고신뢰도의 무선데이터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이동 중에도 유선의 ADSL이나 전용선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며, 본격적인 M-Commerce에 필수적인 무선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KTF는 지난 2001년 3월, 자사 시험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1xEV-DO상용기술 시연에 성공한 이후 그간 내년 월드컵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극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중국 북경에서 열린 "PT Wireless Comm China 2001" 전시회 등 해외전시회에 시험시스템을 출품, 최고 2.4Mbps급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각계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금번 시험평가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산/히타치 컨소시엄 ▲쏠리테크/에어바나 컨소시엄 등 국내외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할 경합을 벌일 예정이며, 이달부터 1월말까지 총 3개월간에 걸쳐서 3개 방식(소형, 통합형, 스마트형)의 시스템에 대해 품질과 상

용화 적정성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

시험평가 세부분야로는 무선망 분야, 프로토콜 연동 분야, 망관리분야, 단말분야, 종합운용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각사별로 구축한 1xEV-DO 상용장비의 기능, 품질 및 성능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1xEV-DO 벤치마킹 테스트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용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KTF는 이 과정을 통하여 1월말까지 최종 장비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내년 3월 중 서울지역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2년 월드컵개막 이전인 2002년 5월부터 서울, 수도권 및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용경 사장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

KTF 이용경 사장은 지난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코피 아난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UN 정보통신위원회(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창립총회에서, 칼리 피오리나 (Carly FIORINA)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회장, 존 첼버스(John CHAMBERS) 시스코 시스템스 회장 등과 함께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UN 정보통신위원회 Taskforce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가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여타 지역에 비해 국가간 정보화 격차가 큰 아시아지역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이슈로서 특히, 남북한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통일기반 조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더욱 의미가 큰 문제다.

UN 정보통신위원회는 2000년 7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 정보격차 해소 및 개도

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키로 결정된 기구로서, UN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공공부문 18명, 민간부문 8명, NGO 대표 4명, UN국제기구 6명, UN대표 3명 등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아시아지역 민간대표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사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세계적인 민간단체인 “국제전자상거래 연합회(GBDe)” 세계 공동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15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GBDe정기회의에서 “정보격차 해소 그룹”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 전자상거래 및 정보격차 해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한편, 이사장은 금번 UN ICT위원회로의 선임을 계기로 민간단체로서 GBDe가 갖는 전문성과 UN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접목시켜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몽골에 CDMA WLL 시스템 수출

LG전자(대표 구자홍)는 몽골의 제 1통신사업자인 몽골텔레콤(Mongolia Telecom)사에 CDMA WLL 시스템을 수출키로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 강창형 상무와 몽골텔레콤 살루(O.Shaaluu) 사장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을 통해 LG전자는 기지국 제어기, 기지국 등 300만달러 규모의 1900MHz 대역 CDMA WLL시스템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2002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게 된다.

몽골텔레콤은 내년 상반기까지 망 구축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WLL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텔레콤은 이번 CDMA WLL 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모비콤, 스카이텔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몽골의 통신시장은 GSM 사업자인 모비콤과 CDMA 사업자인 SKYTEL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사업자인 몽골텔레콤은 유선전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CDMA WLL 수출뿐만 아니라 지난 해 10월 CDMA 사업자인 스카이텔에 400만달러 규모의 800MHz 대역 CDMA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0만달러 규모의 기지국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몽골 CDMA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LG전자 강창형 상무는 “SKYTEL에 이어 몽골텔레콤에도 CDMA 시스템을 공급하게됨으로써 LG전자의 몽골 통신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향후 cdma2000 1x 등 3세대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몽골텔레콤에 추가로 CDMA WLL 시스템 공급을 추진하고 SKYTEL에도 향후 3년간 10만 회선 규모의 CDMA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는 전략이다.

■ Net2Phone과 VoIP 장비 사업 강화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OMDEX FALL 2001 전시에서 인터넷폰 서비스 선두 업체인 넷투폰(Net2Phone)과 Net2Phone VoIP Gateway 사업 본격화를 위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LG전자는 2000년 8월 Net2Phone과 협력 이후 '01년 11월 제품 라인업(Line-up)을 완료하고 차세대 VoIP Gateway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신제품은 올해 개발, 출시된 5개 모델(소/중용량)로, VoIP 기술을 통해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장점 및 비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중소 사무 실용이다.

이 제품들은 Gartner Event의 VAR Vision 통신 부문에서 “Best Product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신제품 발표로 LG전자는 Net2Phone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Net2Phone의 전세계 유통망을 활용, 중소 사무실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IP Phone 제품공급을 본격화하게 됐다.

LG전자 기업통신망 수출그룹 안종대 부장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VoIP 시장에서도 LG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금번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LG전자의 VoIP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Net2Phone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Net2Phone 중심으로 주력 제품인 중소 용량 VoIP Gateway 제품을 강화 세계 유수의 ISP/ITSP 사업을 발굴하고, 자사 키폰시스템 유통을 활용 마케팅을 강화해 2002년 2천만불을 수출목표로 세계시장 점유율 5%, 10위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개시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23일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키 입력만으로 상품대금 지불은 물론, 상품을 전달받을 배송지 지정까지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Mobile Wallet)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에 개인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주소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는 전자지갑 기능 탑재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대금지불과 배송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선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조회한 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정보와 배송지 주소를 알려주거나, 신용카드 정보와 배송지 정보를 매번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적용범위를 무선인터넷 쇼핑몰에 이어, 2002년말까지 계좌이체를 비롯한 은행업무와 증권거래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네파카드를 비롯한 IC칩 기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나 모네파카드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성이 뛰어난 CDMA 망에 추가로 유무선 종합보안환경을 구축했다.

첫째,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의 완벽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전자보안전문업체 시큐어소프트와 공동으로 WAP 방식의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KI)를 개발 적용했다.

둘째, 사용자의 신원확인, 부인방지 기능 등을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과 제휴해 무선 전자서명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적용했다.

셋째, 전자지불 솔루션 전문업체인 티지코프(주)와 공동으로 모바일 커머스 전용 PG(Payment Gateway)

인프라를 개발해 이를 기존 SK텔레콤 이동전화망과 연동함으로써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지불 및 결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SK텔레콤은 노키아8887 기종 단말기에 우선 이 서비스를 적용한 뒤, 내년초부터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되는 대부분의 휴대폰과 PDA, VMT 등 다양한 형태의 무선인터넷 단말기에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 세계최초 동기식3G(1x EV-DO) 서비스개시

SK텔레콤이 11월17부터 세계 최초로 동기식 3G(CDMA2000 1x EV-DO, Evolution-Data Optimized)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3월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역은 우선 서울, 과천, 안양 일부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 4월부터는 전국 26개시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10월까지 삼성전자,LG전자, 콘텔라 등의 장비를 통해 장비성능 시험을 마쳤다.

또 삼성, SK텔레텍 및 외국의 GTRAN 등 단말기 제조사들과 VOD형, 데이터전용(PCMCIA형)주1) 및 화상전화형 단말기 개발에 대한 일정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2월부터 GTRAN에서 출시한 PCMCIA형 단말을 통해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3월부터 일반 단말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5월부터는 삼성에서 출시하는 VOD형 단말기를 통해 본격적인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선보이는 동기식3G(1X EV-DO) 서비스는 기존의 CDMA2000 1X에서 MP3 동



영상 화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4~5분 걸리던 것을 10여 초 이내로 단축시키고 초당 10프레임 이상의 자연스러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그동안 데이터 전송속도의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상전화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및 이동 중 고속인터넷 접속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는 광대역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의 네트워크부문장 김일중 전무는 이번 서비스 개시와 관련 “SK텔레콤은 축적된 기술력과 망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비를 최소화하여 고품질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초기에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전무는 “외국의 사업자들도 2002년 말이나 2003년초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외국보다 6~12개월 정도 앞서 제공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통신장비 및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업체가 동기식 3G 장비와 단말기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 KDN

■ 원격검침시스템 개발

한전KDN은 산업자원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비즈 엑스포 2001’ 행사에서 통합원격검침시스템 등 6종의 이비즈 솔루션을 선보였다.

통합원격검침시스템이란 검침 요원이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 검침을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 자동처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검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빌링 솔루션까지 합칠 경우 요금 내용을 확인한 뒤 즉석으로 입금시킬 수 있는 등 편리함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각각의 전력량계, 가스량계, 수도량계 등에 통신장치(RF)와 이를 통합하는 통합계량장치를 가정에 장착한 뒤 통신망(019 PCS망)을 통해 KDN계량서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 8만여 상가 및 산업단지시설 등에서 고전압 원격 검침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KDN은 이를 일반 사용자 대상의 종합 원격 검침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중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통합원격검침시스템이 정착되면 좀 더 편리하고 규모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한전의 전산 업무를 주관하면서 축적된 기술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이와 함께 전자입찰 시스템, 인터넷 빌링 및 전자지불 시스템, EIP 솔루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 등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다.